

스웨덴어 발음 교육상의 몇 가지 문제점

- 모음을 중심으로 -

변 광 수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필자가 학습지도 현장에서 관찰한 몇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스웨덴어 모음의 특성을 고찰하고 발음상의 난점이나 오류등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 과정에서 때로는 한국인 학습자들의 배경언어로 되어 있는 한국어나 영어의 음성체계와 대조 비교를 하게 된다. 스웨덴어는 모음체계가 복잡한 언어로서 장단의 대립을 이루는 9쌍의 모음 이외에도 4개의 주요 변이음을 가진다.

2. 철자와 발음

스웨덴어 알파벳은 영어의 26자에다 끝으로 œ[o:], ä[ɛ:], ö[ø:] 세글자를 더하여 모음 자음 합해 모두 29자로 되어있다. 발음법칙은 철자대로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철자와 발음과의 대응관계는 그리 정확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스웨덴어는 대응관계의 불일치로 이름난 영어와 붙어 보다는 훨씬 더 규칙적이고, 스페인어, 핀란드어, 한국어보다는 덜 규칙적이라 할 만하다. 즉 9개의 모음글자로서 22개의 소리를 대표하자니(장단으로 대립되는 9쌍의 모음가는 같은 글자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부는 글자의 모양과 발음이 어긋나게 마련이다. 자음에 있어서 철자와 발음간의 불일치는 훨씬 더 심하다.

3. 모음의 길이

스웨덴어는 소리의 길이에 의하여 단어의 뜻이 분화되는 음장언어(chrone language)이다. 길이는 모음 자음에 모두 나타나지만 의미 분화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음의 길이이다.

예를 들면 [vi:s] vis '현명한' [ha:t] hat '증오'
[vɪs] viss '확실한' [hat] hatt '증절모자'

와 같은 한쌍의 단어에서 모음의 길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들은 동음어가 되는 것이다. 이때 길이는 두 단어 사이의 변별적 자질로서 구실한다. 한편 장모음과 단모음의 본포는 강세와 음절구조에 달려있으니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강세음절에서는

1) v: , v:c 예: vi [vi:] , vit [vi:t]

2) vc: , vcc 예: vitt [vɪt:] , vits [vɪts]

와 같은 두가지 음절구조가 있으니 1)은 어말이나 단자음 앞에서 모음이 길어지는 경우이고 2)는 중자음(gemination)이나 자음군 앞에서 모음이 짧아지는 경우이다. 한편 비강세 음절에서는 모음 자음이 모두 짧게 실현된다.

vc , vcc 예: vital [vɪtá:l]
mystisk [mɪstɪsk]

한국어에도 아래와 같이 단음절어에서 모음의 장단으로 대립되는 예가 있지만, /말:/ 'language' /눈:/ 's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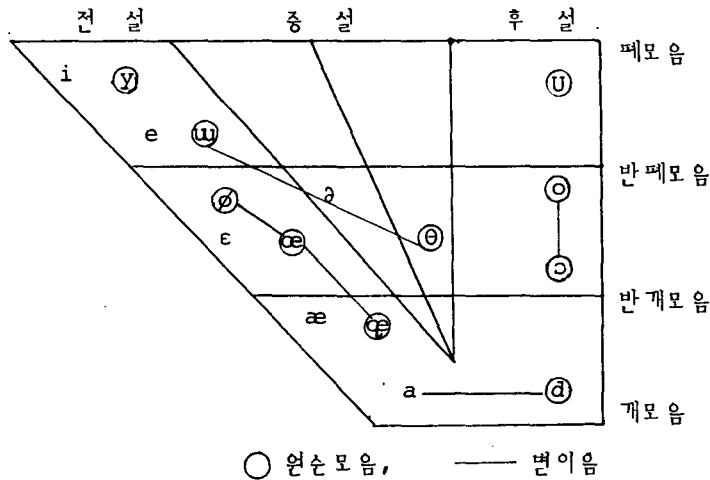
/말/ 'horse' /눈/ 'eye'

스웨덴어에서처럼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이 강한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모음의 길이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고 따라서 상대방이 장단음을 서로 바꾸어 써도 그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외국인인 문맥속에서나 문맥을 떠나서 장모음과 단모음을 바꿔 쓰면 대번에 의아스런 표정을 짓는다. 이것은 길이가 변별적 자질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의미상에 혼란을 가져 왔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길이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한국인은 장모음은 의식적으로 길게, 그리고 단모음은 짧고 약하게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4. 원순 작용

세계각국 언어의 모음 체계를 살펴보면 전설모음은 대개 평순모음이고 후설모음은 원순모음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Ladefoged 1973 : 71). 그러나 상당수의 언어가 전설모음 계열에서 원순모음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어도 후자의 경우에 속하며, 아래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16개의 모음중에서 원순모음이 무려 10개나 되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아래 사각도상에 표시된 모음은 주요모음과 변이음들로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장모음과 단모음을 따로 구별 표시하지 않았다.

모음사각도상의 스웨덴어 모음



다음에 원순모음을 둘러싼 몇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1) 모음 [y:] — [ɯ:]

모음분류의 한 기준으로 입술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원순음과 그렇지 않은 평순음이 있다. 그런데 스웨덴어에서는 원순작용을 다시 두가지 종류로 세분하고 있으니, 하나는 입술을 둥그리며 앞으로 내미는 보통원순 (lip rounding with protrusion) 이요, 다른 하나는 입술을 오므린 채 안쪽으로 당기어 두 입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초원순 (lip compression) 이다 (Malmberg 1955). 다시말해 다른 언어의 모음 체계는 평순 대 원순의 대립을 보이나 스웨덴어는 원순 계열

에서 다시 보충원손 대 초원손으로 대립을 보이니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보충원손 : [ny:] ny '새로운' [dy:] dy '진흙'

초 원손 : [nw:] nu '지금' [dw:] du '너'

이들 최소대립어에서 모음 [y:]와 [u:]의 변별적 자질은 각각 전설 폐모음과 반폐모음이라는 모음의 높낮이에 있지 않고 원손과 초원손의 대립에 있다. 따라서 모음 [u:]가 가지는 초원손적 자질은 의미분화에 기여하여 음운론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모음 [u:]는 독특한 원손 작용 때문에 한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이 배우기에 가장 힘든 모음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음 기호와 기본모음 후설 평손 폐모음 [ɯ]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음가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흔히 모음 [u:]를 철자 U의 영향으로 후설폐모음 [U:]로 오인하거나 아니면 원손작용 및 조음위치로 보아 이 모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단모음 [y:]나 이중모음 [wi:] 또는 [ɥi:]로 대체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예: hus [hu:s] '집' * [hu:s] * [hɥ:s] * [hwi:s]
* [hyi:s]

(* 표시는 잘못된 발음을 뜻한다)

특히 [u:]의 음가를 한국어의 [ɯ(:)](U)와 비슷한 소리로 대신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것은 전설과 후설의 차이도 있지만, 한국어 [ɯ(:)](U)는 원손성이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이 현복 1971:46) 이 두모음은 음가가 전혀 다른 소리이다. 조음위치상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y:]와 [u:]의 혼동은 아주 심하다. 따라서 이들 모음을 단독으로 익히는 것 보다는 위에 든 예와 같은 최소대립어를 통해서 동일한 음성적 환경에서 비슷한 모음간의 미세한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한편 다음과 같이 세계의 모음을 대립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평 손 원 손 초원손
ni [ni:] '너희들' ny [ny:] '새로운' nu [nw:] '지금'

2) 모음 [ɪ:] — [y:]

한국인은 전설폐모음 원손에 속하는 [y:]의 음가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이 모음은 불어의 u[y], 독어의 ü[y]와 비슷한 소리로 원손

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부주의한 발음에서 '쇠' → '세' '최가(성씨)' → '체가' 처럼 [φ]를 [e]로 내는 것을 흔히 들을 수 있다. 환언하면 한국인은 모국어의 음성체계에서 오는 전이현상 (transfer) (Lado 1957 : 11) 때문에 스웨덴어 단모음 [φ:]를 이중모음 [we:]나 평순음 [e:]로 대치하는 일이 많다.

예: [sφ:] sjö '호수' → *[swe:], *[se:]

[çφ:pär] köper '사다' → [çwé:pär], [çé:pär]

[e:]와 [φ:]의 최소대립어는 다음과 같다.

ske [se:] '발생하다' meta [mé:ta] 'წყისილ하다'

sjö [sφ:] '호수' möta [mφ:ta] '만나다'

4) 모음 [w:] — [u:]

모음 [w:]는 전설반폐 초원순 모음으로 철자 U로 표시되며, 모음 [u:]는 후설 폐와 반폐의 중간에서 나는 원순모음으로 철자 O로 표시된다. 외국인들은 철자법이나 모국어의 영향으로 이들의 음가를 제대로 내지 못하며 혼동하는 일이 많다. 후설모음 [u:]는 원순도가 강하고 입술을 안쪽으로 오므리는 게 특징이어서 [∞:]같은 색다른 기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w:]와 [u:]는 강한 강세를 받을 때 마찰음 [β]로 끝나는 점도 다른 언어의 모음과 다른 점이다. 특히 영어 철자의 영향으로 mur[mu:r] '장벽'를 *[mu:r], mor [m∞:r]를 *[mo:r]로 잘못 발음하는 일이 흔하다.

한국어에는 이 [w:]에 해당하는 모음은 없으며, 후설모음 [∞:]에 해당하는 [ɯ] (u)는 조음위치가 약간 더 높고 원순작용이 매우 약하다. [w:]와 [u:]의 차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최소대립어가 있다.

예: [gʷ:d] gud '신 (God)' [sú:pa] supa '마시다'

[g∞:d] god '좋은' [sá:pa] sopa '쫄다'

5) 모음 [w:] — [θ]

이 두 모음은 음운론적으로는 한 음운의 변이음들이지만, 음가의 차이는 현저하다. 즉 [w:]가 전설폐모음으로 긴소리인데 반하여 [θ]는 중설반개모음으로 짧은 소리다. 또한 초원순모음 대 약한 원순모음의 차이도 있다. 그런데 정서법상으로는 다같이 u로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단어에서는 u가 어느 음가를 갖는지 냉큼 알아차리기가 어

롭다. 이 때는 음성적 환경에 의하여 음가를 구별해야 한다. 긴 [u:]는 강세음절의 어말위치나 단자음 앞에서 짧은 [ʊ]는 중자음이나 자음군 앞에서 각각 실현된다.

예: du [dʊ:] '너' ful [fw:l] '추한'

full [fʊl] '가득한' hund[hʊnd] '개'

중설모음 [ʊ]는 한국어의 '어우, 배우' 등의 짧은 [ɯ]와 비슷하나 원순 작용이 더 강하다.

6) 모음 [ʊ]- [u]

중설모음 [ʊ]와 후설모음 [u]의 대립이다. 철자상 [ʊ]는 u로, [u]는 o로 나타난다. 짧은 [u] 또는 [ʊ]모음은 긴 [u:]보다 음가가 더 낮고 전진해 있기 때문에 조음위치상 [ʊ]와 가깝고 원순 작용 역시 두 소리 다 약하기 때문에 이들 두 소리의 음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한 편 청각상으로는 모음 [ʊ]는 짧은 [u], [ɔ], [ə]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u]와의 일치가 제일 흔하다. 최소 대립어는 그리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tʊm]	tum	'인치'	[rʊm]	rum	'방'
[tʊm]	tom	'빈'	[rʊm]	Rom	'로-마'

5 r-음색모음 (r-colored vowel)

미국인이나 미식영어 발음을 익힌 한국인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즉 스웨덴어에서 모음 다음에 r이 연결될 때 이 두분절음을 융합하여 한 개의 r-음색을 띤 모음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 socker [sɔkər] '설탕' → * [sɔkə]

vacker [vakər] '아름다운' → * [vaka]

스웨덴어 발음규칙에서는 비강세 또는 부강세 어말위치에서라도 자음 r를 탈락시킨다거나 선행하는 모음에 융합시키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음가가 뚜렷치 못한 중립모음 [ə]라 할지라도 음가를 살려 모음과 자음의 계기적인 두 소리로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확한 발음훈련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규칙의 문란으로 인해 형태소에 까지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Öppnar [ɕp̥nàr] '열다'의 현재형

Öppna [ɕp̥nà] '열다'의 부정법

위 두 단어의 형태상의 차이는 현재형 어미 -r에 있다. 그런데 이를 [ɕp̥nà] 처럼 r-colored 모음으로 잘못 발음하면 적어도 청각상으로는 부정법 [ɕp̥nà]와 구별이 어렵게 되어 의미전달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 스웨덴어 자음 /r/의 두 가지 변이음인 마찰음 [ʀ]와 전음 [r]중에서 특히 위와 같은 환경에서는 쏘노리릭(울림의 크기)가 더 큰 전음 [r]을 사용하는게 더 좋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스웨덴어 자음 체계에서 r가 후속하는 치음과 결합하여 (rd, rt, rs, rn rl) 5개의 권설자음 [d̥, t̥, s̥, ŋ, l]을 이루는 법칙에 유추되어 모음 + r도 쉽게 권설모음 (retroflexed vowel 또는 r-colored vowel)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큰 오해다. -er, -ar, -or, -ör 가 비강세 또는 부강세 어말위치에서 r-음색의 모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 모음학강

전설모음 [e]와 [ɛ]는 r와 권설음 앞에서 더 열린 음가인 [æ]로 [ɕ]는 [ɕɐ]로 각각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left\{ \begin{array}{l} \left\{ \begin{array}{l} e \\ \varepsilon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æ} \\ \phi(:) \rightarrow \text{ɕɐ}(:) \end{array} \right\} / - \left\{ \begin{array}{l} r \\ \text{supradentals} \end{array} \right\}$$

예 : e → [æ] herr[hæ̀r] 'Mr' berg [bæ̀rj] '산'
 ε → [æ] färg[fæ̀rj] '색깔' värd[væ̀d] '주인'
 ϕ → [ɕɐ] förr[fɕɐ̀r] '이전에' dörr[dɕɐ̀r] '문'
 ϕ: → [ɕɛ] höra[hɕɛ̀:rä] '듣다' dörr[dɕɐ̀r] '죽다'

이러한 규칙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철자대로 herr → *[her] ,

hōra → *[hø:ra] 식으로 발음하여 귀에 거슬리게 된다. 끝으로 한 두 가지 첨부할 것은 스웨덴어 모음 체계에는 몇 개의 외래어를 제외하면 이중모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단순모음 (monophthong)만이 있다. 따라서 모음을 낼때 영어나 한국어의 영향으로 이중모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예를들면

gå [go:] '가다' → *[goŋ], *[gow]; ben [be:n] '뻬' → *[bein];
hus [hu:s] '집' → *[hu:ðs], *[hðu:s], *[hju:s]

와 같은 경우이다. 또 한가지는 장단으로 대립되는 9쌍의 모음은 단지 길이에만 차이가 있지 않고 음색에도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긴 모음 [y:] 와 짧은 모음 [Y] 사이에는 발음근육의 긴장여부, 원손성의 강약의 차이도 아울러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보통 길이에만 관심을 갖고 음색의 차이는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7 맺는말

외국어 학습에 있어 난이도는 목표언어 (target language) 와 배경언어 (source language) 간의 유사성과 비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유사성은 크게는 음성체계와 문법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모음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스웨덴어와 한국어의 모음을 비교하여 조명해 보았다. 이들 양언어는 모음조직이 풍부하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 그리 큰 장애는 없으나 스웨덴어의 강하고 특이한 원손성 때문에 한국인은 정확한 음가를 익히기가 어렵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는 크건 작건간에 배경언어인 모국어로 부러오는 간섭 (interference)에 의한 것인데, 모국어와 목표어의 체계사이에 유사성이 그리 가깝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이미 습득한 외국어의 체계에서 좀 더 가까운 유사성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모국어이외의 습득된 외국어로 부러오는 간섭때문에 생기는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스웨덴어 학습에 있어 발생한 원인을 한국어 음성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제1외국어인 영어(미식)의 음성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때 외국어(영어)는 제2의 배경언어로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변 광수 "스웨덴어의 구조적 특징". 한글 제170호, 한글학회, 1980.
- 이 상익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 종합검토". 언어와 언어학, 제7집, 외국어대 언어연구소, 1981.
- 이 현복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권 1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1.
- 허 응 국어 음운학. 정음사, 서울, 1970.
- Björkhagen, Im.
Modern Swedish Grammar. Stockholm, 1966.
- Elert, C. -C.
Allmän och svensk fonetik, Stockholm, 1970.
- Corell M. & Pettersson N. -O.
Elva språk och svenska. IES Stockholms universitet, 1978.
- Hammarberg Björn.
"Interference in American English speakers' pronunciation of Swedish". Studia Linguistica 21, Lund, 1967.
- Ladefoged Perter.
Preliminaries to Linguistic phonetics. Chicago & London, 1973.
- Lundström E. & Trampe P. af.
Elementär fonetik. Stockholm, 1977.
- Malmberg Bertil.
Svensk fonetik. Lund, 1971.
- Malmberg Bertil.
Uttalsundervisning. Stockholm, 1970.

S U M M A R 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difficulties of the pronunciation in Swedish vowels encountered by Korean learners and to seek solutions in order to correct the possible errors. In the course of the analysis the Swedish and Korean vowels in question are compared with the purpose of describing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systems. This contrastive description is largely based on the students' articulatory speech level and the writer's auditory judgement.

The following points are discussed:

- 1) Vowel length as a distinctive feature in Swedish compared with that of Korean.
- 2) A special attention is paid on the Swedish vowel [u:] that is characterized by its peculiar type of lip rounding.
- 3) The six pairs of Swedish vowels that are phonologically contrastive but difficult for Koreans to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y:] ~ [ɥ:], [i:] ~ [y:], [e:] ~ [ø:], [ɛ:] ~ [œ:], [ɔ:] ~ [θ], [θ] ~ [u]
- 4) The r-colored vowel in the case of the postvocalic /r/ that is very common in American English is not allowed in English sound sequences. The r-colored vowel in the American English pattern has to be broken up and replaced by bi-segmental vowel-consonant sequences. Korean accustomed to the American pronunciation are warned in this respect. For a more distinct articulation of the postvocalic /r/ trill [r] is preferred to fricative [ʀ].
- 5) The front vowels [e, ε, ø] become opener variants [æ, œ, œ] before /r/ or supradenta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difficulties of the pronunciation of the target language (Swedish) are mostly due to the interference from the learner's source language (Korean). However, the learner sometimes tends to get interference also from the other foreign language with which he or she is already familiar when he or she finds in that language more similarity to the target language than in his or her own mother tongue. Hence this foreign language (American English) in this case functions as a second language for Koreans in learning Swedish.